



<식품안전정보 필수앱>

‘내손안(安)’,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6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

- 4년 연속 수상으로 ‘내손안(安)’ 앱의 지속적인 활용 가치 증명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(앱) ‘내손안(安)’이 「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6*」 공공서비스 앱 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.

*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IT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갖춘 서비스(앱·웹·AI)를 공공서비스 등 11개 부문에 대해 2015년부터 ‘디지털조선일보’에서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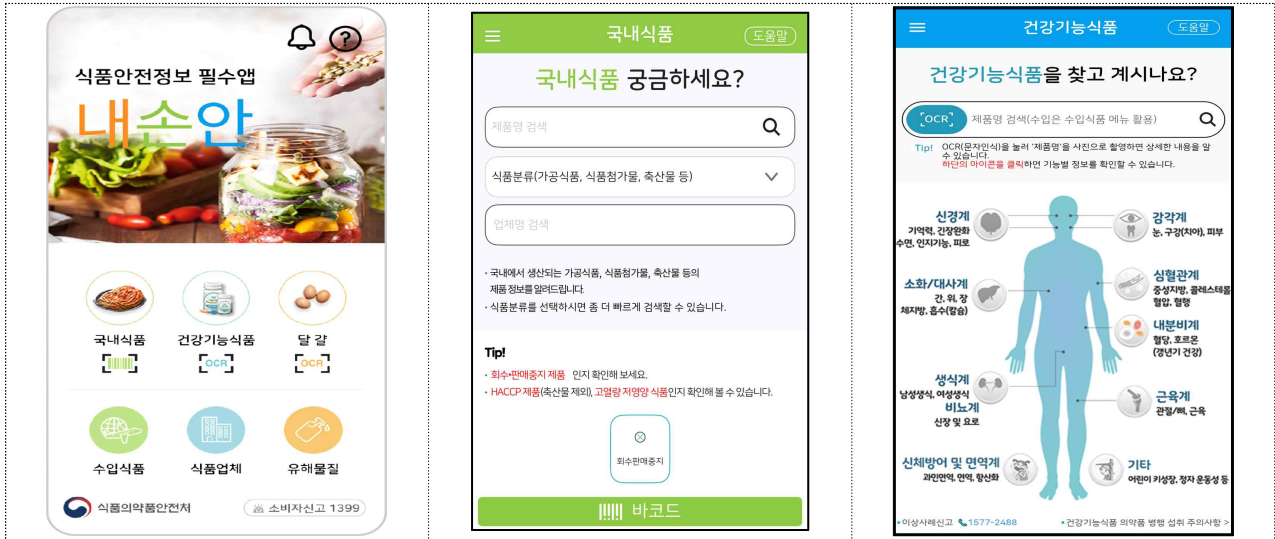
‘내손안(安)*’은 201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국내·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, 식품업체, 유해물질 등 안전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이다. 특히 해당 앱은 제품·업체 검색부터 회수·판매중지 제품, 부정·불량식품 신고 정보까지 한 곳에서 볼 수 있어 사용자 친화적이다.

* 플레이스토어(Android), 앱스토어(iOS), 윈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('25년 기준 다운로드 누적 건수: 655,181)

‘내손안(安)’의 ‘국내식품’ 메뉴에서는 제품명 검색은 물론, 바코드 촬영 기능을 활용해 식품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, 회수·판매중지 제품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다. ‘건강기능식품’ 메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와 원료별 제품 데이터를 연계하여 원하는 제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.

또한 지도 기반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주변 식품업체를 조회할 수 있고, 달걀 껍데기 표시 정보, 부정·불량식품 1399 신고 기능, 식품업체들의 HACCP·GMP 인증 여부와 행정처분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.

<내손안 앱 화면>



이번 수상은 소비자 인지도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4년 연속 수상으로 국민들로부터 ‘내손안(安)’ 앱의 활용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 하였음을 증명하였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다양한 식품안전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건강한 식생활 소비 실천 문화 조성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	책임자	과 장	기용기 (043-719-4051)
		담당자	사무관	이미순 (043-719-4052)